

AI 배전 안정화 시스템 나주에 구축

산자부 공모 선정...국비 12억 확보
연말까지 나주스포츠파크 일원에
국내 첫 분산에너지 기술 등 실증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을 예측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배전, 전력 시스템이 나주에 구축된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AI기술로 전력을 예측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 소비·저장·조절이 가능한 배전망 건설 대안기술(NWAs)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 구축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송전망 포화, 출력 제한, 계통 불안정성 등 전력 계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산형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실증'이 본격 추진된다.

세부 사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의 클라우드형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FEMS)과 AI 기반 전력 예측 시스템, P2H(전력-열 변환) 기술 도입, 수요 반응(DR)·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



나주시는 AI기술로 전력을 예측해 지역 내 에너지 소비, 저장, 조절이 가능한 배전망 유원 자원(NWAs)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시스템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 <나주시 제공>

연계 분산에너지 기술 실증 등을 추진한다.

사업은 가나아에너지가 주관하고 바스코(CT),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자립의 해법인 분산 에너지 기술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실증사업이 될 것"이라며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나주가 분산에너지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다음달 4일까지 입주자 모집

화순군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2025년 만원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를 오는 5월 4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정책이다.

지난 2년간 총 200호 모집에 총 2천107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해 2023년 18:1, 2024년 1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끝에 총합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번 2025년도 모집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고려해 혼인 증명서류 제출 시기를 혼인 후 제출로 조정했으며 신혼부부 중 임신 중이거나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입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학업 및 구직활동 중인 일용·초단시간 근로 청년들도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김성(오른쪽) 장흥군수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수출업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흥군, 8개국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74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장흥군이 농수산물 수출 500억원 달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수출상품 발굴과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 희망업체들의 큰 관심속에 진행된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의 해외바이어 10명이 초청됐다.

해외바이어들은 수출 희망업체와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흥 지역 수출업체 생산 현장도 방문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불안한 수출 환경 속에서도 이번 행사로 미국,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개국과는 총 74만 달러(한화 약 10억 7000만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장흥군은 해외바이어들과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도록 수출상담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500억원 달성을 위해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해외 판촉활동을 강화 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병영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화재 예방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모 선정

강진군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병영시장은 총사업비 7500만원 중 국비 5300만원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진군은 병영시장 내 노후 전기설비 정비로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장 내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병영시장에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시장 인근 유흥부지에 차량 6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이를 통해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진군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도비 공모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미삭'과 50억원 규모 투자협약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공장 신축

함평군이 지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식회사 미삭과 총 5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서 이상의 함평군수와 오경민 미삭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미삭은 함평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에 가전제품 및 자동차 금형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고 관련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미삭은 2019년 설립 이후 꾸준한 영업 활동으로 일본과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공장 신축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규모에 따른 물량 수주 약속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생산 품목은 국내 매출 기준으로 가전제품 부품

이 약 80%, 자동차 브라켓 금형이 20%를 차지하며, 수출용 제품은 전량 자동차 금형으로 계획돼 있다.

함평군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9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지역 인제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경민 미삭 대표이사는 "국내 매출로는 가전제품(80%) 및 자동차 브라켓 금형(20%)이 주를 이룬다. 직접 수출품으로는 전량 자동차 금형으로, 2025년을 기점으로 수출량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며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미삭에 감사드립니다"며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문화재단,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재)담양군문화재단이 담양 인문학가옥에서 진행하는 '마음부터 : 첫 문장 시작하기' 참가자를 다음달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마음부터 : 첫 문장 시작하기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작가와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소

통하고 전문멘토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에세이로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마음부터 : 첫 문장 시작하기는 매 차시 강연, 합평, 글을 써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인문학가옥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되고 2회에 걸친 탐방과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300ml x 3개(9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